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김 의 철
중앙대 심리학과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성인 세대집단별로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나아가서 한국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부각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107명으로서 남녀 초, 중, 고등학생 369명과, 그들의 부모 369명, 모 369명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김의철과 박영신 (2004)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토착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에 의해 양적인 질문지로 제작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로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회가 연고주의가 강하고, 불안하며, 보수적이고, 부정부패가 많고,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한국 사회가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지는 못하나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했다. 둘째, 세대별로 한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감정적이며,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 우월주의가 강하다고 보았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한국 사람은 협동심이 있으며 정이 많고 근면 성실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셋째 세대별로 한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국회 정당, 노조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 넷째로, 세대별로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족, 학교 친구/교사,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네 가지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청소년 세대가 성인보다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정체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은 연고주의가 강하고 부정부패가 많은 사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체면을 중시하고 감정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에 협동심이 있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공존하였다. 한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는 모두 낮았는데, 특히 국회나 정당처럼 정치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특히 가족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친구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그러나 공무원과 정치가에 대해서는 불신했으며, 특히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

주요어 : 세대차이, 한국 사회, 한국 사람, 신뢰, 연고주의, 부정부패, 체면, 정, 가족, 토착심리.

* 이 논문은 2005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인천시 남구 용현동, E-mail : yspark@inha.ac.kr

한국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 및 신뢰

개인이 갖는 자기와 관련된 개념은 각 개인의 사고뿐만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Kim, 2004)을 갖는다. 이러한 자기와 관련된 인식은 행동의 선택이나 강도 그리고 지속도 등을 결정하는데 밀접히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Jourden(199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설정하는 목표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제에서의 자기 만족도 높으며, 조직에서의 성취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와 학업성취도(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린 성인 환자들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질병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건강의 회복도 빠르고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도 향상(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표상도 집단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Kashima, Kashima, Farsides, Kim, Strack, Werth & Yuki, 2004)을 미친다. 개인에 초점을 둔 자기와 관련된 개념들(박영신, 2001)만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에 초점을 둔 사회 특성과 그 구성원에 대한 표상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Kim, 2002)를 지닌다. 개인이 독립된 개체로서 뿐만 아니라 소속한 집단 내에서의 관계망에 의해 정의되고, 관계 구조가 개인의 사고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독립적인 자율성을 지닌 개체로서보다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내에서의 역할과 관계에 의해 정의(Kim & Park, 2004)되기 때문에, 관계된 집단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한국 사회가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개인주의와는 구분되는 집단주의 문화(Hofstede, 1991) 또는 관계주의 문화(Kim, 2001) 범주에 포함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자기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개념이 서양인들처럼 주체로서의 자기인식에 집중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과 관계 내에서 정의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국제 비교의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는 투명하지 못하고 부패지수가 높다. 즉 2004년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계산한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보면, 146개국 중에 한국은 CPI 순위가 47위였고, 10점 만점의 CPI 점수에서 4.5 점으로 투명성이 낮았다(연합뉴스, 2004년 10월 20일).¹⁾ 2004년 결과는 2003년에 비해 투명성 순위가 3단계 올랐으나,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 2003년에는 2002년보다 투명성 순위가 10 위나 낮아진 바 있다(조선일보, 2003년 10월 8일).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CPI 점수 변화 추이를 보면, 3.80-5.02²⁾ 사이 값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 1위 핀란드, 9.7점; 2위 뉴질랜드, 9.6점; 5위 싱가포르, 9.3점; 15위 독일, 8.2점; 17위 미국, 7.5점; 24위 일본, 6.9점; 35위 대만, 5.6점; 39위 말레이시아, 5.0점; 47위 한국, 4.5점; 71위 중국, 3.4점; 90위 러시아, 2.8점; 133위 인도네시아, 2.0점; 145위 방글라데시, 1.5점

로 투명성이 낮다.

과연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한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는 투명성이 낮고 부정부패가 많다고 한국인들이 지각하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국제 비교된 지표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각하지 않는가? 부정부패 외에, 한국 사회에 대한 다른 부정적인 표상들이 있는가? 부정적인 표상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상은 없는가? 있다면 구성원들에 의해 지각된 긍정적 표상이 어떠한 구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서 부분적으로 시사되고 있다. 한국 정치지도자에 대한 표상을 연구한 결과(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에 의하면, 중학생과 대학생 응답자의 과반수가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문제점으로 부정부패를 지적하였다. 한편 고등학생과 그들의 아버지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에서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으로 부정부패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점으로 부도덕한 정치 지도자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한국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 결과(차종천 등, 2005)에 의하면, 국회 대기업 언론기관 모두 중간 이하의 점수를 보임으로써 불신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회와 같은 정치조직에 대한 불신이 가장 강하였다.

정치조직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이 북유럽인들에 비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5). 덴마크나 스웨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모두,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들을 지지하였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다. 그러나 북유럽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응답자들은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낮았으며, 정치조직이나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신뢰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신뢰와 인간관계 및 시민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적 뿌리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국인의 신뢰의식을 분석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토착심리의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확인되었다. 첫째는 신뢰의 형성에서 ‘우리 관계’가 중요함으로써 관계문화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신뢰관계에서 의미있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신뢰의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수양을 하는 인격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한국인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Kim, Park, & Park, 1999)에 터하여, 청소년과 성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의식의 기저에 있는 심리 문화적 기반이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김의철, 박영신, 2004b)된 바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첫째, 한국 정치에 대해 응답자의 94.5%가 부정적인 지각(불

2) 1995년 - 4.29점, 1996년 - 5.02점, 1997년 - 4.29점, 1998년 - 4.20점, 1999년 - 3.80점, 2000년 - 4.00점, 2001년 - 4.20점, 2002년 - 4.50점, 2003년 - 4.30점, 2004년 - 4.50점.

신, 정치인 자질부족, 부정부패, 파벌주의, 후진성, 변화 필요성)을, 한국 경제에 대해 84.9%가 부정적인 시각(불안, 불경기, 구조적 문제, 불평등, 비관적)을, 한국 사회에 대해 78.2%가 부정적인 시각(부정부패, 급격한 변화, 불안, 빈부격차, 이기주의, 보수적, 연고주의)을 하였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자부심, 오랜 전통, 아름다움, 독창적)이 54.3%, 부정적 시각(주체성 상실, 문화사대주의, 자긍심 부족, 보수적)이 45.7%를 차지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기적, 도덕성 결여, 조급성, 체면/권력지향)이 58.6%, 긍정적 시각(인정, 착함, 단결력, 근면)이 41.4%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 이유로는 우리나라(3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가능성, 한국인의 인간미, 한국인의 노력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에 대한 불신 이유로는 정치인 불신(30.3%) 부정부패/비리(22.7%)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이외에 공공기관 불신, 경제적 불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변화를 위한 효능적 신념의 필요와,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으로서 '관계지향 문화'와 '도덕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이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특히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는, 한국 문화의 맥락 속에서 한국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의 연구 결과는 분석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밝혀진 결과들을 토대로 후속연구에서 양적인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경험과학적인 검증을 보다 정밀하게 해 나갈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된다.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 비교

세대차이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였지만, 특히 근대 한국의 급격한 변동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과 60여 년 전만해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으며 그 이후 6.25전쟁을 겪었고, 수십 년 사이에 농경시대에서 공업화시대를 거쳐 이미 정보화시대로 변화했다. '현대 한국 사회의 변동과 세대 집단별 경험 차이'(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그림 1 참고)에서 논의된 바처럼, 2005년 현재 한국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의 경험의 역사는 천양지차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고와 행동 나아가서 삶의 양식에서까지 차이를 유발하며 '세대집단별 시각 차이'(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그림 1 참고)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세대차이 문제는 사회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주제로도 관심을 모아 왔다. 나은영과 민경환(1998)은 한국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명시적 규범의 구조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진행되는 암묵적 규범이나 행동원리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발견된다고 보고, 이러한 한국 문화의 이중성 저변에는 근대적 규범과 유교적 관행의 불일치, 연고주의와 같은 비공식적 대인관계망의 발달, 의사소통 구조의 이중성 및 가족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세대차이가 이러한 문화 이중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은 진보지향적인 가치를, 성인은 보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세

대별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c)에 의하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을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세대에 관계없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정태연(2001)이 대학생과 부모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점을 분석한 결과, 온정주의나 편법주의와 같은 가치관에 있어서는 세대차이가 있었으나, 두 집단 모두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이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사회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부정부패'를,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불안'을 가장 많이 지적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사회를 불신하는 이유로도 정치인 불신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한국 사회에 대해 청소년이나 성인세대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인 면에서 세대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성향과 정치참여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3)를 보면,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정치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띠었으며, 시민운동단체 등 비정치적인 참여행동을 하는 경향이 더 있었다.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투표행동을 통해서도 정치의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3),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소속정당이나 집안 배경을 대통령 투표의 기준으로 중요시 여기는 정도가 낮았다. 한국 사람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4)에 의하면,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들이 성인 세대보다 정당이나 국

회를 더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경찰서 더 나아가서 교육기관에 대해서까지도 청소년이 부모보다 더 높은 신뢰를 보였다.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결과들도 세대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생(임미향, 김의철, 박영신, 2005)과 중학생(김미숙, 박영신, 김의철, 2005) 모두, 청소년 집단이 성인보다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세대집단별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들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와도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 성인보다 진보적 가치를 갖고 한국 사회에 대해 신뢰가 강하였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이나 나아가서 미국 사회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시사된다. 김의철, 박영신과 오나라(2003)가 세대별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나 미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반미감정이 나타났으나 세대간에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이 미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고 그 다음으로 대학생, 성인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성인 세대 집단별로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나아가서 한국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부각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사회 인식과 한국 사람으로서의 집단정체의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다루고자 하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들(김의철, 박영신, 2004b)을 토대로 하여, 핵심이 되는 구인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로운 양적인 측정도구를 제작한다. 둘째, 청소년과 성인 세대별 및 성별로,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청소년과 성인 세대별 및 성별로,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넷째, 한국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전반적으로 부각되는 독특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리한 바와 같다. 총 1,107명이었으며, 초 중 고등학생이 369명, 그들의 부모가 73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각각 554명, 553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은 청소년 전체가 14.79세(초 11.73세, 중 14.46세, 고 17.69세)이었으며, 성인 전체는 43.15세(남자 44.40세, 여자 41.89세)이었다. 청소년들의 성적 분포는 상(15.6%) 중-상(28.1%) 중(35.6%) 중-하(16.9%) 하(3.9%)로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조금 많았지만 대체로 정상분포를 보였다. 분석대상 성인 남자의 직업은 무직(1.5%) 단순노동직(3.5%) 자영업(36.3%) 사무직(20.6%) 기술직(25.6%) 관리직(4.9%) 전문직(7.6%)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정도는 초등 졸(1.9%) 중 졸(4.7%) 고 졸(48.2%) 대 졸(39.0%) 대학원 졸(6.1%)로서, 고 졸이 약 반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대 졸이 많았다. 분석대상 성인 여자의 교육정도는 초등 졸(1.7%) 중 졸(9.2%) 고 졸(63.7%) 대 졸(22.1%) 대학원 졸(3.4%)로서, 고 졸이 과반수가 훨씬 넘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 졸이 많아, 성인 남자와 비슷한 분포 경향을 보였다. 분석대상 가족의 소득은 매우 낮다(1.7%) 비교적 낮다(9.2%) 보통이다(71.2%) 비교적 높다(16.5%) 매우 높다(1.4%)로서, 중간 정도의 소득이 가장 많고 대체로 정상분포를 이루었다. 이러한 배경정보로 미루어 보아, 분석대상 성인들의 사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해 총 1,350명을 표집설계 하였다. 학생 450명(초, 중, 고 각각 150명씩)과 그들의 부모 900명(부 450명, 모 450명)을 표집 하였다. 그러나 불성실한 응답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표 1에

표 1. 분석대상

세대별 성별	전체	청소년				성인			
		초	중	고	계	초 부모	중 부모	고 부모	계
남자	554	52	67	66	185	103	138	128	369
여자	553	51	71	62	184	103	138	128	369
계	1,107	103	138	128	369	206	276	256	738

회경제적인 지위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청소년용과 성인용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각 질문지에 서 다루고 있는 변인과 문항들은 동일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부분과, 한국 사회의 기관 및 사람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는 부분, 및

배경정보를 다루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의 측정을 위한 질문지의 하위변인별 문항구성과 Cronbach alpha 신뢰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사회 인식을 구성하는 하위변인들 및 측정문항들은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의 연구결과에 토대하여 연구자가 제작되었다. 즉 한국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 나타난 토착심리들을 면밀히 검토한 선행연구 결과들로부터 대표적인 변인을 구성하고, 응답자들의 실제적인 반응들을 토대로 문항을 제

표 2. 측정변인의 문항구성과 Cronbach alpha 계수

변 인	하위변인	문항 구성	신뢰도
한국 사회 인식	부정적		
	불안	1 11 21 31 41 51	.64
	부정부패	2 12 22 32 42 52	.76
	보수성	3 13 23 33 43 53	.67
	연고주의	4 14 24 34 44 54	.75
	불평등	5 15 25 35 45 55	.75
	긍정적		
	발전가능성	6 16 26 36 46 56	.78
	선진강대국	7 17 27 37 47 57	.73
	자유로움	8 18 28 38 48 58	.61
한국 사람 인식	민주적	9 19 29 39 49 59	.73
	합리적	10 20 30 40 50 60	.74
	부정적		
	이기적	1 9 17 25 33 41	.72
	감정적	2 10 18 26 34 42	.65
	체면	3 11 19 27 35 43	.73
	배타적 우월주의	4 12 20 28 36 44	.65
	긍정적		
	정	5 13 21 29 37 45	.82
	협동심	6 14 22 30 38 46	.74
	근면 성실	7 15 23 31 39 47	.76
	합리적	8 16 24 32 40 48	.62

작하였다.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으로 분류되었다. 부정적인 인식은 불안, 부정부패, 보수성, 연고주의, 불평등과 같은 5개의 하위변인을, 긍정적인 인식은 발전가능성, 선진강대국, 자유로움, 민주적, 합리적과 같은 5개의 하위변인을 포함하였다. 각 하위변인들은 6개 문항들로 측정되었으며, 하위변인들의 Cronbach alpha 신뢰도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61-.78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답지는 5점 척도로서 전혀 아니다(1) 약간 아니다(2) 중간(3) 약간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으로 분류되었으며, Cronbach alpha 신뢰도는 .62~.82 사이의 값을 보였다. 부정적인 인식의 측정은 이기적, 감정적, 체면, 배타적 우월주의와 같은 4개 하위변인들이, 긍정적인 인식의 측정은 정, 협동심, 근면 성실, 합리적이고 같은 4개 하위변인들이 포함되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인 및 문항들도 한국 사회 인식의 측정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답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각 하위변인들은 모두 6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한국 사회 인식에서 '보수성'이나 한국 사람 인식에서 '체면'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을 내포하는 하위변인이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토착심리를 분석한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의 결과에 토대하기로 한다. 즉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지각에서 '보수적'이 부정적인 표상을 대표하는 범주 중의 하나로, 한국 사람에 대한 지각에서 '체면/ 권력지향'이 부정

적인 표상을 대표하는 범주 중의 하나로 확인된 바 있다.

둘째, 한국 사회의 기관 및 사람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도 연구자에 의해 결정되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6개 기관 즉, 국회/정당, 언론/법조계, 경찰서/군대, 대기업, 노조, 교육기관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5 유형의 사람 즉 가족, 학교 친구/교사, 이웃, 공무원, 정치가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1) 전혀 신뢰할 수 없다, (2) 약간 신뢰할 수 없다, (3) 중간, (4) 약간 신뢰할 수 있다, (5) 매우 신뢰할 수 있다.

셋째, 배경정보 측정을 위한 질문들로는 연령, 성별, 학교 소속, 학교에서의 평균 성적, 사회경제적지위 등이 포함되었다.

실시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의 표집은 2003년 7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자료는 모두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 아래 실시되거나 연구조원이 직접 참여하여 응답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응답자들은 수업시간과 동일한 분위기에서 모두 신중하게 응답을 하였다. 또한 질문지에 답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질문지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분 이내였다. 각 청소년 응답자들은 성인 표집을 위한 부모용 질문지를 전달 받았다. 부모용 질문지는 각자 집에 가서 부모들로부터 직접 받아 오도록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 회수 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질문지

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선물도 함께 제공하였다. 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 응답의 성실성을 검토하였다. 빠뜨린 응답이 있다가, 비록 빠뜨린 응답은 없었으나 계속 동일한 답지 번호만을 기록하는 등 성실성이 의심되는 질문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의 자료를 기초로, 먼저 측정도구의 양호도 검증에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였다. 하위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성별 이원

결 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세대집단별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집단 및 세대집단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3에서 전체집단의 평균을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한

표 3. 세대집단별 성별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변인		전체	세대집단별		성별		
			청소년	성인	남자	여자	
		M (SD)	M (SD)	M (SD)	M (SD)	M (SD)	
한국 사회 인식	긍정적 인식	발전가능성	3.25 (.68)	3.25 (.75)	3.25 (.64)	3.24 (.71)	3.26 (.65)
		선진강대국	2.71 (.67)	2.65 (.70)	2.74 (.65)	2.67 (.67)	2.75 (.66)
		자유로움	2.96 (.65)	2.97 (.61)	2.97 (.55)	2.95 (.59)	2.99 (.54)
		민주적	2.79 (.67)	2.80 (.69)	2.78 (.62)	2.78 (.67)	2.80 (.62)
		합리적	2.70 (.67)	2.72 (.67)	2.69 (.67)	2.68 (.67)	2.72 (.65)
	부정적 인식	불안	3.61 (.62)	3.52 (.67)	3.66 (.58)	3.61 (.59)	3.61 (.64)
		부정부패	3.82 (.69)	3.73 (.77)	3.86 (.64)	3.83 (.69)	3.80 (.69)
		보수성	3.42 (.62)	3.27 (.66)	3.48 (.58)	3.43 (.59)	3.40 (.64)
		연고주의	3.96 (.69)	3.81 (.73)	4.03 (.66)	3.97 (.69)	3.95 (.69)
		불평등	3.76 (.67)	3.69 (.73)	3.80 (.64)	3.75 (.66)	3.77 (.68)
한국 사람 인식	긍정적 인식	정	3.53 (.71)	3.55 (.77)	3.51 (.68)	3.50 (.72)	3.55 (.70)
		협동심	3.55 (.67)	3.59 (.70)	3.53 (.65)	3.54 (.70)	3.56 (.63)
		근면 성실	3.48 (.65)	3.44 (.67)	3.50 (.64)	3.47 (.67)	3.50 (.63)
		합리적	3.06 (.56)	3.10 (.55)	3.05 (.57)	3.07 (.59)	3.06 (.53)
	부정적 인식	이기적	3.28 (.66)	3.17 (.70)	3.33 (.63)	3.32 (.65)	3.23 (.66)
		감정적	3.59 (.57)	3.50 (.59)	3.63 (.56)	3.61 (.56)	3.56 (.59)
		체면	3.64 (.65)	3.51 (.67)	3.70 (.64)	3.65 (.64)	3.63 (.66)
		배타적 우월주의	3.25 (.62)	3.17 (.68)	3.29 (.59)	3.30 (.62)	3.20 (.63)

표 4. 세대집단별 성별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한국사회인식		변산원	df	MS	F
긍정적 인식	발전 가능성	세대별(1)	1	.012	.027
		성별(2)	1	.373	.804
		(1)×(2)	1	.495	1.067
	선진 강대국	세대별(1)	1	2.145	4.859 *
		성별(2)	1	1.502	3.403
		(1)×(2)	1	.010	.024
	자유로움	세대별(1)	1	.067	.002
		성별(2)	1	.902	2.800
		(1)×(2)	1	.545	1.693
	민주적	세대별(1)	1	.154	.368
		성별(2)	1	.034	.083
		(1)×(2)	1	.001	.000
	합리적	세대별(1)	1	.245	.553
		성별(2)	1	.859	1.942
		(1)×(2)	1	.640	1.447
부정적 인식	불안	세대별(1)	1	4.033	1.722 ***
		성별(2)	1	.201	.534
		(1)×(2)	1	1.165	3.098
	부정부패	세대별(1)	1	4.023	8.490 **
		성별(2)	1	.639	1.349
		(1)×(2)	1	1.146	2.418
	보수성	세대별(1)	1	1.973	29.642 ***
		성별(2)	1	.622	1.680
		(1)×(2)	1	.492	1.329
	연고주의	세대별(1)	1	11.540	24.655 ***
		성별(2)	1	.467	.998
		(1)×(2)	1	.511	1.091
	불평등	세대별(1)	1	3.146	7.050 **
		성별(2)	1	.007	.016
		(1)×(2)	1	.456	1.023

* $p < .05$, ** $p < .01$, *** $p < .001$

긍정적 인식의 경우는 ‘발전가능성’이 3점(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그 나머지 ‘선진강대국’ ‘자유로움’ ‘민주적’ ‘합리적’에서는 모두 중간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경우는 하위변인 모두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연고주의’와 ‘부정부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세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는 연고주의와 부정부패가 심각하게 팽배해 있으며, 이 외에도 불평등하며 불안하고 보수적인 사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가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합리적이지 못하고 선진강대국도 아니며, 민주적이거나 자유로운 사회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세대별 성별 이원변량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긍정적 인식에서는 ‘선진강대국’만이 $p < .05$ 수준의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하위변인들에서는 세대집단별로 전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의 평균값을 보면 성인이 청소년보다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냄으로써, 성인들이 한국 사회가 더욱 선진강대국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를 보면 부정적 인식과 관련된 5개 하위변인에서 모두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불안’ ‘보수성’ ‘연고주의’에서는 $p < .001$ 수준의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부정부패’와 ‘불평등’에서는 $p < .01$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3에서 세대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성인들의 평균값이 청소년보다 모든 하위변인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성인들이 한국 사회가 더욱 불안하고 보수적인 사회이며 연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들일수록 한국 사회가 부정부패가 많으며 불평등한 사회

로 인식되었다.

성별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에 있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p > .05$).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하는 여부가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연고주의 뿌리가 강하며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고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강하였다. 세대별로는 성인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회가 더욱 연고주의가 강하고, 불안하며, 보수적이고 부정부패가 많으며,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

표 5는 세대집단별 성별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한국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는 세대별로 뿐만 아니라 성별로도 $p > .05$ 수준으로서 전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남자인 여자인 관계없이 모두, 한국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들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평균값들을 보면, 하위변인들 모두 3점 이상으로 중간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변인들 간에 비교를 해 보면 ‘협동심’ ‘근면 성실’ 등이 비슷한 평균값을 보이고, ‘합리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모두, 한국 사람이 전반적으로 협동적이고 근면성실하며 정이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경우를 보면, '이기적'의 경우는 세대별 성별 주효과가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

으며, 상호작용효과($p < .01$)도 있었다. '감정적'의 경우는 세대별로만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체면'은 세대별로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와 더불어, 상호작용효과($p < .01$)도 있었다.

표 5. 세대집단별 성별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한국사람인식	변산원	df	MS	F
긍정적 인식	세대별(1)	1	.307	.613
	성별(2)	1	1.119	2.233
	(1)×(2)	1	.932	1.859
	세대별(1)	1	.955	2.155
	성별(2)	1	.005	.013
	(1)×(2)	1	.445	1.005
	세대별(1)	1	.934	2.217
	성별(2)	1	.252	.599
	(1)×(2)	1	.064	.153
	세대별(1)	1	.656	2.088
	성별(2)	1	.025	.081
	(1)×(2)	1	.132	.420
부정적 인식	세대별(1)	1	5.672	13.384 ***
	성별(2)	1	4.993	11.782 ***
	(1)×(2)	1	4.261	1.054 **
	세대별(1)	1	4.006	12.265 ***
	성별(2)	1	1.018	3.117
	(1)×(2)	1	.777	2.380
	세대별(1)	1	8.848	21.215 ***
	성별(2)	1	.735	1.762
	(1)×(2)	1	2.075	4.975 *
	세대별(1)	1	3.571	9.411 **
	성별(2)	1	5.607	14.776 ***
	(1)×(2)	1	5.116	13.483 ***

* $p < .05$, ** $p < .01$, *** $p < .001$

.05)가 있었다. ‘배타적 우월주의’ 경우는 세대별($p < .01$) 성별($p < .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호작용효과도 $p < .001$ 수준에서 매우 높았다.

‘이기적’의 경우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으므로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M=3.31$)과 남자 성인($M=3.33$) 경우 평균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단 여자 청소년($M=3.03$)보다는 여자 성인($M=3.32$)이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 성인 여자들이 청소년 여자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욱 이기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인식에서 세대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주로 여자 집단 내에서의 세대차이를 알 수 있다. ‘감정적’의 경우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인이 청소년보다 더욱 높은 값을 나타냄으로써, 성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더욱 감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면’의 경우에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상호작용효과가 있으므로, 각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M=3.58$)에 비해 남자 성인($M=3.68$)의 평균값이 높음으로써, 남자 성인들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욱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자 청소년($M=3.43$)보다도 여자 성인($M=3.72$)이 더 높은 평균을 보이므로, 여자 성인이 여자 청소년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욱 체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표 3에서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역시 성인이 청소년보다 높은 값을 얻었다. 그러므로 상호작용효과의 영향력은 적고 주로 세대간의 주효과 차이로 설명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보다 성인세대가 한국 사람들이 체면 중심적이라고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배타적 우월주의’의 경우에도 상

호작용효과가 강하였으므로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하면, 남자 청소년과 남자 성인은 큰 차이가 없고, 여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성인이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남자 집단 내에서는 세대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여자 성인이 여자 청소년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욱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져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성인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감정적이며 체면을 중시하고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고, 모든 하위변인에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한국 사람이 이기적이라든가 배타적 우월주의가 강하다는 인식에서의 세대차이는 여자 집단에서만 나타나고 남자집단 내에서는 이러한 세대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신뢰

청소년과 성인 세대집단별 성별 및 전체 집단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신뢰 평균을 구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한국 사회의 조직 중에 ‘교육기관’만 중간이 약간 넘는 값을 보이고, 나머지 조직들은 모두 중간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회/정당’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불신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값을 보일 뿐, ‘국회/정당’ ‘노조’ ‘대기업’ ‘언론/법조계’ ‘경찰서/군대’ 조직 모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조직 경제조직 언론조직 등 대부분의 조직에 대해 한국인들은 불신하며, 특별히

표 6. 세대집단별 성별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신뢰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변인		전체	세대집단별		성별	
			청소년	부모	남자	여자
		M (SD)	M (SD)	M (SD)	M (SD)	M (SD)
한국 사회	국회/정당	2.05 (.98)	2.19 (1.03)	1.98 (.95)	2.04 (.98)	2.08 (.99)
	언론/법조계	2.63 (.94)	2.69 (.96)	2.60 (.92)	2.61 (.95)	2.65 (.93)
	경찰서/군대	2.94 (.92)	3.01 (1.02)	2.90 (.86)	2.98 (.94)	2.91 (.91)
	대기업	2.60 (1.00)	2.55 (1.09)	2.63 (.95)	2.66 (1.03)	2.56 (.98)
	노조	2.54 (1.02)	2.64 (1.05)	2.49 (1.01)	2.56 (1.06)	2.53 (.99)
	교육기관	3.07 (1.06)	3.12 (1.15)	3.04 (1.01)	3.12 (1.06)	3.03 (1.06)
한국 사람	가족	4.42 (.73)	4.60 (.70)	4.34 (.74)	4.44 (.72)	4.42 (.75)
	학교친구/교사	3.66 (.70)	3.78 (.72)	3.60 (.68)	3.71 (.71)	3.62 (.70)
	이웃	3.29 (.92)	3.21 (.98)	3.33 (.89)	3.31 (.94)	3.28 (.91)
	공무원	2.83 (.92)	3.05 (.95)	2.72 (.88)	2.83 (.93)	2.84 (.91)
	정치가	2.41 (.90)	2.47 (1.00)	2.38 (.85)	2.42 (.91)	2.41 (.91)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의 전체 집단 평균을 보면, ‘가족’에 대한 신뢰는 거의 절대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친구/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이웃’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과 ‘정치가’에 대해서 매우 낮은 평균을 보였는데, 특히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가장 깊었다.

표 7은 세대집단별 성별 한국 사회의 조직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과 성인 세대집단별로는 ‘국회/정당’에 대해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노조’에 대해서는 $p < .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모든 사회 조직들에 대해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세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는 한국 사회 조직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표 6에서 세대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국회/정당’에 대해서 성인이 청소년보다 훨씬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역시 성인의 평균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성인인 청소년보다 한국의 국회나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경제 관련 조직에 대해 불신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세대집단별 성별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세대별로 ‘가족’ ‘학교친구/교사’ 및 ‘공무원’에 대해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나머지의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별로는 학교친구/교사’에 대해서만 $p < .05$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세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는 한국 사회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

표 7. 세대집단별 성별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한국 사회 신뢰	변산원	df	MS	F
국회/정당	세대별(1)	1	1.725	11.148 ***
	성별(2)	1	.614	.638
	(1)×(2)	1	.113	.117
언론/법조계	세대별(1)	1	2.129	2.399
	성별(2)	1	.681	.767
	(1)×(2)	1	.191	.215
경찰서/군대	세대별(1)	1	2.626	3.064
	성별(2)	1	1.519	1.772
	(1)×(2)	1	.271	.317
대기업	세대별(1)	1	1.698	1.679
	성별(2)	1	2.290	2.265
	(1)×(2)	1	.033	.033
노조	세대별(1)	1	5.192	4.934 *
	성별(2)	1	.469	.445
	(1)×(2)	1	1.097	1.042
교육기관	세대별(1)	1	1.603	1.419
	성별(2)	1	2.885	2.553
	(1)×(2)	1	.211	.186

* $p < .05$, *** $p < .001$

과 관련된 모든 하위변인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별 평균을 제시한 표 6을 보면, ‘가족’ ‘학교친구/교사’ ‘공무원’에 대해 모두, 청소년이 성인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리고 ‘학교친구/교사’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족이나 학교 친구 및 교사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웃을 신뢰하는 정도나 정치가를 불신하는 정도에서는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마찬가지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 친구나 교사를 약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들에 토대하여, 아래에서는 크게 세 측면에서 논의 및 결론을 정리

표 8. 세대집단별 성별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한국 사람 신뢰	변산원	df	MS	F
가족	세대별(1)	1	16.122	3.268 ***
	성별(2)	1	.084	.159
	(1)×(2)	1	.148	.279
학교친구/교사	세대별(1)	1	8.139	16.679 ***
	성별(2)	1	1.853	3.798 *
	(1)×(2)	1	.028	.059
이웃	세대별(1)	1	3.192	3.754
	성별(2)	1	.261	.307
	(1)×(2)	1	.116	.136
공무원	세대별(1)	1	27.563	33.336 ***
	성별(2)	1	.003	.004
	(1)×(2)	1	.294	.355
정치가	세대별(1)	1	2.257	2.735
	성별(2)	1	.090	.110
	(1)×(2)	1	.519	.629

* $p < .05$, *** $p < .001$

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청소년과 성인 세대 간의 차이와 관련된 논의이다. 둘째는, 한국인들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전반적으로 부각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구자로서 후속 연구의 과제와 더불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후속 과제들을 연구 결과에 토대하여 제안하였다.

성인보다 청소년 세대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집단정체 의식

청소년과 성인 세대 간에 한국 사회와 사람

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신뢰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청소년 세대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정체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인들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회가 연고주의에 의해 움직여지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며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성인들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 여기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부정적 인식을 더욱 많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욱 신뢰하는 정도가 높았다. 즉 한국 사회 내에서 국회/정당과 같은 정치관련 조직,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성인이 청소년보다 더

낮았다. 또한 한국 사람으로서 공무원, 학교 친구/교사, 가족에 대한 신뢰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높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 세대가 성인보다 더욱 긍정적인 집단정체의를 갖고 있음은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들(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4; 임미향, 김의철, 박영신, 2005; 김미숙, 박영신, 김의철, 2005)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세대집단간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에 대한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im과 Park (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세대가 성인들보다 훨씬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이 강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 종속관계를 거부하고 보다 주체적인 집단정체의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의식과, 촛불 시위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회참여의식은, 부분적으로는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성인세대보다 긍정적인 집단정체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 세대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집단정체의식이 가능한 것은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한국이 물질적 풍요를 어느 정도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였고, 월드컵 축구 등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누적(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더욱 이상주의적이고 특히 삶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뢰감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요약하면 성인보다 청소년이 한국 사회 및

한국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집단정체의식과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의 특성만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들도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표 3 참고),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표 6 참고) 때문에, 세대간의 차이에 대한 해석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전체집단의 종합적인 논의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 시대의 자화상 :
연고주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한국 사회, 체면을 중시하고 감정적이지만 협동심과 정이 있으며 근면 성실한 한국 사람들

이 연구에서의 전반적인 결과들 중에서 현저하게 드러난 사실들에 토대하여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 시대의 자화상을 그려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특성들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첫째, 한국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가 모두 낮았다는 사실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국가투명성기구에서의 국제비교 결과에서 드러난 한국의 높은 부패지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는, 한국 사람들의 주관적인 지각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국제비교 자료와 한국인들의 주관적인 지각의 일치는, 한국이 국가투명성이 낮고 부정부패가 많은 사회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다.

왜 부정부패가 많은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서 집단주의 문화가 영향력이 있다는 설

명이 가능하다. 나은영(2001)이 국가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들과 대인간 신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투명성을 가장 잘 예언하는 문화차원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차원이었고, 한 국가가 더 개인주의적일수록,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불확실성 수용 경향이 클수록, 그리고 더 여성적일수록 국가투명성이 더 높았다. 그러므로 한국은 매우 집단주의적인 사회이므로, 국가투명성이 낮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한국 사회는 연고주의 사회라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확연하게 밝혀진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연고주의가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에 대한 설명들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안신호(2000)는 투표에서의 연고주의 문제를 관계 및 기저동기의 면에서 분석한 바 있으며, 이훈구(2003)는 혈연 학연 지연에서 나타나는 연고주의의 특징과, 연고주의의 심리적 동기 및, 엘리트층에서의 연고주의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룬바 있다.

한국 사람들은 친구관계 등의 인간관계에서만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도, 지역연고와 연계된 '우리 편 의식'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진, 박희량과 박무익(1999)은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 후보를 '우리 편' 후보로 느낄 경우 그 후보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이성과 객관성과 공적인 논리에 입각한 사리논리가 아니라, 정과 간주관성과 사적인 논리에 입각한 심정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중한(1994)은 학연이나 지연 등의 연결고리에 기초한 인간관계 중심의 연고주의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러한 인간관계 중심의 사회적 기제

보다 개인의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원칙을 고수하는 사회정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치 분야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연고중심의 사회라는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적인 관계 중심의 연고주의가 강한 것이, 개인간의 관계에만 한정을 할 때는 서로 의리있게 돌보아 줌으로써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나 또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적 정의가 상실되었거나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기범, 김미희와 최상진(200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사회적 정의보다는 사적인 정의이자 도덕인 의리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않아도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친구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친구 사이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었다. 한규석(2000)은 공과 사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공정한 행위를 모범적인 답으로 여기고 있으나, 인정행위도 중요하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셋째,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은, 특히 국회나 정당처럼 정치관련 기관에 대한 불신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관련 기관에 대한 불신과 일치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서는 공무원과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강했으며, 특히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현저하였다.

이러한 정치 분야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인 인식은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한 불신의 이유로서 정치인 불신과 부정부패/비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 정치 지도자에 대한 표상(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사회의 문제점(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차중천 등, 2005) 등의 연구에서 특히 국회와 같은 정치조직에 대한 불신이 가장 강하였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의 꼴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5개국 간의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Helgesen과 Kim(2002)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일본 사람들에 비해 가장 국회와 입법 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체면을 중시하고 감정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에 협동심이 있고 정이 많으며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공존하였다. 이러한 결과도 시사하는 바처럼,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정서적임을 알 수 있다. 김명언과 이영식(2000)이 한국기업 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을 검토하였을 때, 이러한 기반이 대부분 심정교환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배려해 주는 등을 통해 심정을 잘 교류할 수 있을 때, 이윤 추구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의 인간관계에서조차도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데,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은 여러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이 연구의 결과는 일견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실제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한국 사람들인데, 왜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에 대한 표상이 일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저변에는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한국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다섯째, 이상에서 언급한 바처럼, 한국 사회나 사회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거의 불신하는 경향이 높은데,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신뢰가 유지되는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가족에 대한 높은 신뢰는, 한국 사회와 같은 관계문화에서의 신뢰에서의 심리적 기초가 되고 있음(Park, Kim & Lee, 2004)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된 가치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토착적인 특성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과 성인 세대간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성인세대 모두, 생활목표의식으로서 가정화목에 대한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을 비교하였을 때, 세대별로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강한 사회적 지원을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청소년들의 경우는 비록 일탈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일반 중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2004c). 김의철(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치집단이나 정부기관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이 내집단에 대해 안심하는 경향(Yamagishi, 1998)은 일본 사회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에 대해 협동심이 있고 정이 많으며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응답자들이 지각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성인 모두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의 실천을 위해서 국민들의 강한 자기효능감(Bandura, 1997)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하위 변인들의 구성은 서양의 측정도구를 번역했다거나 연구자의 이론적 모색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한국 사람들의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b)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한국인들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지각과 신뢰의식에서의 토착심리를 보다 타당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상진, 김의철과 김기범(2003)은 한국 사회 대인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신뢰 형성이 상대방의 마음에 기반을 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김의철과 박영신(2004a)은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나타난 신뢰의식을 분석한 결과, '희생' 등과 같은 매우 토착적인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심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화와 철학 그리고 종교 등의 면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은 서양과 큰 차이가 있다(Kim, 2003). 그러므로 세계 심리학의 흐름 속에서 토착심리

학 분야의 발전(Kim & Park, 2004)과 더불어, 한국인의 토착심리들을 계속 진지하게 규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 사회와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고,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후속 과제:

미래 한국 사회 청사진과 청소년 세대의 비전

이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을 마치며 몇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과 신뢰의 형성에 대한 심리학적으로 보다 정교한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세대간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과 신뢰의 정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분히 평면적인 기술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청소년이 성인보다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달리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과 성인 세대간의 차이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및 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환경적이고 심리적인 변인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변인들의 실제적이고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추출해 내고자 한다. 급변하는 한국의 역사에서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 전혀 다른 과거의 생활 경험이 원인으로 작용(김명언, 김의

철, 박영신, 2000)하였을 수 있다. 또는 성인과 청소년은 현재 각자가 처해 있는 역할과 책임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또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심리특성 변인들이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과의 관련 및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주기로 일정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변인들을 재 활용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기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의 측정 변인들이 한국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b)에 토대하여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집단정체감을 파악하는데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추출된 측정 변인들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밝혀지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보다 내용타당도 높은 측정 변인의 구성을 위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도들과 관련된 자료의 누적은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떠한 토착적인 집단정체감을 갖고 자화상을 그려나갔는지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자료로 누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현재 한국 사회의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고주의나 부정부패 현상, 또는 한국 사람들의 체면의식이나 정으로 맺어지는 관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지각이 어떠한 추이를 보일 것인가가 매우 흥미롭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신뢰 대상으로서 한국 사회의 기관을 여섯 가지, 한국 사람을 다섯 가지 묶음으로 분류를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분류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나 기업가 등 보다 다양한 대상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상 선정이 한국 사회 인식과 사람 인식의 방향과 크기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는 후속되는 사회문제심리학적 연구의 과제에 초점을 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과학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여기에 인용해 보기로 한다: “Science에는 국경이 없지만 scientist에게는 조국이 있다”(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506/03/gonews/v9250133.html, 2005년 6월 7일). 이 연구를 마치며 심리학자로서 추진해야 할 후속의 연구 과제에만 시각을 한정하지 않고, 그 연구 과제를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시각과 결부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아래 두 가지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한국 사회나 한국 사람의 긍정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 발전시키며, 부정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의 필요성이다. 사회문제심리학적 연구가 단순히 연구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규명하여 진실을 밝히고 실제적인 시사를 통해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의 삶에 생명력을 갖고 융통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뇌와 연결된 연구 주제의 선정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략을 시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을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성인세대보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높은 신뢰를 가진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무엇을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는가(박영신, 김의철, 2004a, 2004b)에 더불어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제시대에 우리 사회는 조국 해방의 간절한 목표가 있었고, 6.25 전쟁 후에는 안정되게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이, 그리고 공업화 시대 이후에는 조국 근대화, 독재시대에는 민주화라는 사회적 목표와 비전이 있어, 집단이 그를 향해 공동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은 예컨대 PISA 평가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부모들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자녀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목표가 대부분 단기적으로는 대학입시에서, 장기적으로는 성공적 직장취업과 만족한 개인의 삶이라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것이 대부분 개인의 성취에만 초점을 둔 것들이며,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 어떠한가 한다는 큰 청사진이 청소년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교육적 성취라는 각론을 갖고 현실에서 발버둥치며 열심히 하지만, 그러한 각론들이 어떠한 총론 아래에서 연계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 즉 실천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각론은 확실한데, 각론과 연계된 목표와 이념 차원에서의 총론이 빈약하고 불투명하다.

이러한 총론에 해당하는 비전을 구축하고, 그것이 개인의 삶 속에 반영되어 실천되기 위해, 기성세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즉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어떠한 에너지로 집결시켜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에

대한 정보로서보다는, 그러한 이해가 청소년들의 미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예측과 관리 조절에 활용될 수 있을 때 더욱 진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청사진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범, 김미희, 최상진 (2002). 한국인의 대인 관계에서의 기본 도덕으로서의 의리분석: 한국인에게 진정한 친구는 의리 있는 친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79~101.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 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명언, 이영석 (2000). 한국기업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99~120.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7~333.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3).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투표행동을 통해 본 정치의식 차이 분석: 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7~168.
- 김미숙, 박영신, 김의철 (2005). 중학생과 부모의 한국사회 삶의 질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5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의철 (2002). Democracy, leadership and political culture in Korea: With specific focus on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37~170.
- 김의철, 박영신 (2004a).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박영신 (2004b).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103~129.
- 김의철, 박영신 (2004c).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의철, 박영신 (2005). Trust, relationship, and civil society in Scandinavia and East Asia: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33~161.
-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1(1), 109~142.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의철, 박영신, 오나라 (2003). 한국 중학생, 대학생, 성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 반미감정의 심리, 사회, 문화적 토대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39~178.
-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 나은영 (2001). 국가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들과 대인 간 신뢰: 61개국의 자료 2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65~90.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박영신 (2001). 한국인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함의: 자기, 성취, 스트레스, 안전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1년도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01~406.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c).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87~115.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안신호 (2000). 투표에서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경향성과의 관계 및 기저 동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45~180.
- 연합뉴스 (2004. 10. 20.). 한국 부패인식지수 146개국 중 47위. <http://www.transparency.org/surveys/#cpi>. 국제투명성기구 2004년도 부패인식지수.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사회의 문제와 발전 전망에 대한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34~339.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3).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정치효능감, 신뢰의식과 정치참여행동 차이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9~170.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한국 사람과 공공기관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7~158.
- 이종한. (1994). 연고주의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이훈구. (2003). 연고주의. 서울: 법문사
- 임미향, 김의철, 박영신 (2005). 초등학생과 부모의 한국 사회 삶의 질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5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19.
- 조선일보 (2003년 10월 8일). 한국 부패지수 세계 50위, 2002년보다 10 계단 추락.
- 차중천, 김상욱, 남준호, 문용갑, 박경숙, 이정환, 이해경, 정기선 (2005). 사회조사의 업그레이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한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속의 신뢰와 불신의 기반으로 서의 마음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17.
- 최상진, 박희량, 박무익. (1999). 한국 대학생의 대통령 후보 선택에 관여되는 한국적인 Parameter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41~15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 성과와 과제: 2003 TIMSS와 OECD/PISA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ORM 2004-26.
- 한규석 (2000).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39~63.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교육과학사.
- Helgesen, G. & Kim, U. (2002). *Good government: Nordic and East Asian perspectives*. Copenhagen: NIAS Press.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차재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 Jourden, F. (1991). The influence of feedback framing on the self-regulatory mechanism governing complex decision making. Ph. D diss.,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Kashima, Y., Kashima, E., Farsides, T., Kim, U., Strack, F., Werth, L., & Yuki, M. (2004). Culture and context-sensitive self: The amount and meaning of context-sensitivity of phenomenal self differ across cultures. *Self and Identity*, 3, 125 ~141.
- Kim, U. (2001). Ethnography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Aasen, H. S., Kim, U., & Helgesen, G. (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in Korea: Psychological,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245 ~278. Kyoyookkwahaksa.
- Kim, U. (2002).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destructiveness, creativity, and potential: Indigenous analysis of the self, relationship, cultures and civilizations. Presidential address of Division of Psychology and 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Singapore, July 7-12.
- Kim, U. (2003). Science, religion, philosophy, and culture: Psychological analysis of western, islamic, and east asian world views. Kim, U., Aasen, S., & Ebadi, S. *Democracy, human rights, and islam in modern Ira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Bergen: Fagbokforlaget.
- Kim, U. (2004). Relational concept of sel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behavior. Keynote address,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July 31. Honolulu.
- Kim, U., & Park, Y. S. (2004).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he relational self in East Asia: A challenge to Western conceptualizations of child development and attachment.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 199. August 8-13,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Spielberger, C.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 ~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 Park, Y. S. (2005). Perception of American people, society, and influence: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of anti-American sentiments in South Korea. Steinberg, D. I. (Ed.).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247 ~265.
- Kim, U., Park, Y. S., & Park, D. H. (1999). The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4), 451 ~464.
- Park, Y. S., Kim, U., & Lee, S. M. (2004). The basis and evolution of trust in relational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and cultural analysis.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 62. August 8-13,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 Yamagishi, T. (1998). 信頼の構造: こころと社會

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 신뢰
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문화심리학 총서
4. 서울: 교육과학사.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506/03/go-news/v9250133.html> (2005년 6월 7일). '황우석 어록' 떴다.

1 차 원고 접수일 : 2005. 7. 28

최종 원고 접수일 : 2005. 8. 19

K C I

Perception and Trust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Chungang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and trust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among students and adults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 matched sample of 1,107 participants, consisting of 369 students, their mothers and their fath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s more likely than adolescents to hold negative views of Korean society. Adults are more likely than adolescents to view Korean society as showing high ingroup favoritism, to be insecure, to be conservative, to be corrupt, and to have social inequities. Both groups agree that Korean society is not rational nor democratic, but believe that it has the potential for progress. Second, parents are more likely to hold negative views about Korean people. Adults are more likely than adolescents of viewing Korean people as overly conscious about social face, emotional, selfish, exclusionary, and conceited. Both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gree that Koreans are cooperative, full of *jung* (deep affection and attachment), and sincere. Third, adults are less likely to trust Korean institutions than adolescents. Adults are less likely than adolescents to trust National Assembly, political parties, and unions.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han their parents to trust family members, school friends, teachers, and government employe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dolescents have higher trust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than their parents. Fifth,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both group perceive Korean society as showing high ingroup favoritism and corruption. In terms of Korean people, respondents had a more balanced view of perceiving them as highly sensitive to social face and being emotional, while also perceiving them as cooperative and full of *jung*. The trust of Korean institutions were generally low, especially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However, the trust of family was very high, followed by trust of school friends and teachers. The trust of government employees was low and this was especially the case for politicians.

key words : generational differences, Korean society, Korean people, ingroup favoritism, corruption, social face, jung, family, indigenous psychology.

부록: 질문지 (학생용)

다음 각 문항을 읽고 당신과 일치하는 ()에 V 표 해 주십시오.

1. 성별: (1) 남 (2) 여
2. 연령: (만 세)
3. 학교에서의 평균성적: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4. 학교: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인문고등학교 (4) 실업고등학교
5. 아버지 직업: (1) 무직 (2) 단순노동직 (3) 자영업 (4) 사무직 (5) 기술직 (6) 관리직 (7) 전문직
6. 아버지 교육정도: (1) 초등졸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졸
7. 어머니 교육정도: (1) 초등졸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졸
8. 가족의 소득: (1) 매우 낮다 (2) 비교적 낮다 (3) 보통이다 (4) 비교적 높다 (5) 매우 높다

한국 사회에 대한 평소의 생각 : 아래 모든 문항에 1~5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중간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1. 경제가 불안하다.			() 31. 지나치게 복잡하다.	
() 2. 부정부패가 심하다.			() 32. 투명하지 못하다.	
() 3. 보수적이다.			() 33. 폐쇄적이다.	
() 4. 집안이 중요하다.			() 34. 집단별로 갈등이 있다	
() 5. 빈부격차가 심하다			() 35. 공정하지 못하다	
() 6. 발전 가능성이 있다			() 36.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 7. 살기 좋은 나라이다			() 37.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이다	
() 8.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38. 다양한 생각이 수용된다	
() 9. 민주적인 사회이다.			() 39.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이다	
() 10. 합리적인 사회이다.			() 40. 법과 질서가 분명하게 지켜진다	
() 11. 너무 급격하게 변한다 .			() 41. 사회가 혼란스럽다.	
() 12. 비리가 많다.			() 42.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	
() 13. 경직되어 있어 답답하다.			() 43. 배타적이다.	
() 14. 인맥이 있어야 성공한다.			() 44. 학벌이 좋아야 한다	
() 15. 불평등하다			() 45. 균등한 기회가 없다	
() 16. 희망이 있다			() 46. 살기 좋아질 것이다	
() 17. 선진국이다			() 47. 사람답게 살 수 있다	
() 18. 개방적이다			() 48. 형식적 규제가 적다	
() 19.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 49.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	
() 20. 공과 사를 잘 구분한다.			() 50. 합리적인 방법이 통한다	
() 21.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 51. 안전하지 못하다.	
() 22. 믿을 수 없다.			() 52. 비도덕적이다.	
() 23. 너무 권위적이다.			() 53. 관습에 얽매어 있다.	
() 24. 지역감정이 심하다.			() 54. 연고(혈연, 학연, 지연 등)가 영향을 준다	
() 25.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다			() 55. 성차별이 있다	
() 26.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 56. 여러 가지 전망이 긍정적이다	
() 27. 복지사회이다			() 57. 세계 질서와 정의의 수호하는 나라이다	
() 28. 개인의 입장을 존중한다			() 58. 생활이 자유분방하다	
() 29. 제도가 민주적으로 되어 있다.			() 59. 민주주의 사회의 표본이 되고 있다	
() 30. 상식과 이성이 통하는 사회이다.			() 60.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킨다	

한국 사람에 대한 평소의 생각 : 아래 모든 문항에 1~5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중간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1. 이기적이다			() 25. 자기자신 밖에 모른다 .	
() 2. 감정에 치우친다			() 26. 급하다	
() 3. 체면을 중요시한다			() 27. 허영심이 있다	
() 4. 자만심이 강하다			() 28. 우월감에 빠져있다	
() 5. 정이 많다			() 29. 따뜻하다	
() 6. 협동적이다			() 30. 서로 돕는다	
() 7. 근면하다			() 31. 의지력이 강하다	
() 8. 합리적이다			() 32. 자립적이다	
() 9. 개인의 이익만 추구한다			() 33. 인색하다	
() 10. 즉흥적이다			() 34. 기분에 좌우된다	
() 11. 외형이 그럴 듯해야 한다			() 35. 실속이 없다	
() 12. 자기의 이익만 주장한다			() 36.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무시한다	
() 13. 인간미가 있다			() 37. 인심이 좋다	
() 14. 지력이 있다			() 38. 위기에 잘 단합된다	
() 15. 성실하다			() 39. 끈기가 있다	
() 16. 계산이 분명하다			() 40. 이성적이다	
() 17.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41. 서로 돕지 않는다	
() 18. 여유가 없다			() 42. 감성적이다	
() 19. 허례허식이 강하고 실속이 없다			() 43.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한다	
() 20. 거만하다			() 44.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려 한다	
() 21. 끈끈한 정이 있다			() 45. 다정다감하다	
() 22. 단결심이 강하다			() 46. 뭉치면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 23. 노력을 한다			() 47. 인내심이 있다	
() 24. 냉철하다			() 48. 이치에 맞게 일을 한다	

제시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 : 아래 모든 문항에 1~5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전혀 신뢰할수없다	약간 신뢰할수없다	중간	약간 신뢰할수있다	매우 신뢰할수있다
1	2	3	4	5
() 1. 부모		() 8. 직장 상사	() 1. 국회	() 8. 군대
() 2. 형제/자매		() 9. 경찰	() 2. 정당	() 9. 대기업
() 3. 친구		() 10. 공무원	() 3. 노동조합	() 10. 교육기관
() 4. 이웃		() 11. 국회의원	() 4. 언론사	
() 5. 학교동창		() 12. 대통령	() 5. 법조계	
() 6. 학교 선생님		() 13. 낯선 한국인	() 6. 공공관서	
() 7. 직장 동료		() 14. 낯선 외국인	() 7. 경찰서	